

## 한국어 화자의 영어 일치소 습득과 그 이론적 함축성<sup>1)</sup>

서진희  
(공주대학교)

**Suh, Jin-Hee. (1997). The acquisition of L2 English agreement by L1 Korean speakers &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SLA.**

This paper aims at showing firstly, that the parameterized Universal Grammar is also accessibl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ased on the data found in the English Agreement acquisition by Korean speakers and secondly, that the theoretical claim that the acquisition of Agreement is related to the Subject Drop phenomenon can be supported by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ata. The functional category AGRP which is crucial here can be parameterized according to its features with Korean of -Agr and English of +Agr. Two groups of 40 each were tested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parameter resetting is possible in terms of the Agreement feature.

In addition to Agreement test, three more tests for the distribution of Subject Drop, Subject Raising and NPI (Negative Polarity Items) were conducted in order to find the correlation among those grammatical phenomena. The result is that the acquisition of Agreement and the Subject Drop possibility are correlated but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the obligatory Subject Raising process. Finally, NPI distribution test which is supposedly related to the Subject Raising turned out to carry little information since the average grades from both groups were very low.

---

1)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성인 화자에게 제2언어로서 영어의 일치소가 어떻게 습득되며, 일치소의 습득 여부와 관련된 다른 문법 현상이 있는지 제2언어 습득을 통해 알아 보는데 있다. 기능범주로서 일치소는 촘스키(Chomsky 1993, 1995)의 최근 이론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매개변항화될 수 있고, 이로써 언어간 차이가 설명된다. 한국어와 영어는 이 일치소 범주가 갖는 매개변항의 값에서 차이가 난다. 제2언어 습득의 문제는 이러한 매개변항화된 보편문법의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다. 또한 일치소가 주어탈락 현상<sup>2)</sup>과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그 둘을 비교함과 아울러 주어인상이라는 또 다른 규칙을 대조분석할 것이다. 2절에서 본 논문이 가정하고 있는 언어이론과 그 이론에 입각한 제1언어 습득 문제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같은 문제를 제2언어 습득의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4절은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소개하며, 5절은 결론이다.

##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언어습득의 일반적 문제이다. 우리는 촘스키(1981, 1986)가 지적한 제1언어 습득의 문제 즉, 논리적 문제라고도 불리우는 학습가능성의 문제가 존재함을 가정할 것이다. 아동이 태어나면서 부터 접하는 언어 자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적 노력없이 유창하게 누구나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언어습득에 사용된 자료와 습득된 언어지식 사이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 해결은 인간이 생득적으로 보편문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언어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이 보편문법은 언어간의 차이를 위해 제한된 매개변항을 두고 있다.

둘째로 일치소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다. 촘스키는 그의 최근 이론에서 보편문법에서 허용하는 매개변항의 변이 즉, 각 언어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이 매개변항은 기능범주의 어휘적 자질에 국한된다고 했다. 따라서 일치소는 기능범

2) 소위 프로탈락 현상을 말하는데, 프로탈락 매개변항의 존재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기서는 주어의 탈락만을 보기 때문에 프로탈락과 구분하여 주어탈락이라고 하겠다.

주로서 언어간에 서로 다른 자질을 취할 수 있으며, 한국어는 -AGR을, 영어는 +AGR의 값을 갖는다고 한다.<sup>3)</sup>

예글리와 하이암스(Jaeggli & Hyams 1988)는 일치소의 습득과 주어탈락 현상이 밀접히 연관된다고 했는데, 이는 예글리와 사피(Jaeggli & Safir 1989)의 이론을 언어습득적으로 지지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는 주어 생략할 수 없는 언어인데, 아동의 초기 모국어 습득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가 종종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 (1) a. Shake hands.  
 b. Want go get it.  
 c. Show Mommy that.

이러한 주어탈락 현상은 일치소의 습득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없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주어탈락이 그 언어의 일치소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글리와 사피는 스페인어, 한국어와 같은 주어탈락 언어는 일치소가 아주 없거나 아주 풍부한 언어이고, 영어와 같이 일치소가 있긴 하나 충분히 풍부하지 않은 경우는 주어탈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생략된 요소가 프로(pro)라고 할 때, 이 프로에 대한 허가(licensing)와 식별(identification)을 구분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주어탈락이 일단 허가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Infl 핵지배가 가능해야 한다.<sup>4)</sup> 비지시적 프로는 이 조건만 만족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시적 프로인 경우는 식별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치소가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일치소가 없는 경우는 주절의 생략된 주어는 문맥 운용소나 화용상 통제에 의해 가능하고, 종속절의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논항이나 주절의 추상적 일치소에 의해 식별된다고 한다. 영어와 같이 일치소가 있긴 하나 충분하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어탈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발달언어 측면에서 보면, 초기 아동 영어의 주어탈락은 화용상의

3) 촘스키(1995)는 그의 1993년 논문에서와는 다르게 AGR이라는 기능범주를 제거하고 대신 AGR을 시제 T의 한 자질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일치소가 다른 기능범주인 시제(T), 보문소(C), 한정사(D)등과 달리 해석자질이 없으며, 주어인상과 같은 외현적 이동을 일으킨다고 주장된 일치소의 자질은 T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결론이 두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므로 AGRP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4) 기능범주 Infl이 세분화된 최근 이론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능범주를 가리키는 것인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통제에 의한 식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어가 충분한 일치소를 보유하지 않은 언어이며, 이 일치소가 2세 반에서 3세에서야 완전히 습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치소를 습득해 감에 따라, 지시적 프로의 식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지<sup>5)</sup> 프로주어의 일반적 허가조건도 만족되지 않아, 결국 주어생략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치소의 습득은 주어탈락 현상의 종식을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세째는 격이론과 관련된 주어인상 효과이다. 데프레와 파이어스(Deprez & Pierce 1993)는 아동 영어 습득시에 나타나는 주어의 위치에 대한 오류를 동사구내 주어 가설과 주어인상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오류는 흔히 보고된다.

- (2) a. Not Fraser read it.  
 b. No the sun shining.  
 c. No I see truck.

(2)와 같은 자료는 부정어의 위치가 IP와 VP 사이에 있고, 아동의 초기 문법에 아직 주어인상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주어인상의 기본 내용은 주어 명사구가 격을 할당받기 위해, VP의 지정어 위치에서 I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IP는 시제 TP와(또는) 일치소 AGRP로 나누어 지지만, 주어가 TP의 지정어 위치를 거쳐 AGRP로 연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촘스키(1993)의 방식으로 주어인상을 설명해 보면, 먼저 모든 문법적 도출의 기본 요인이 어휘항목 또는 핵의 형태론적 자질에 국한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사나 명사구의 형태론적 자질들은 T나 AGR과 같은 기능적 요소들이 갖는 자질들과 일치하는지 점검되어야 하므로 핵이동 또는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T의 명사구 자질 즉, 주격자질은 강한 자질이므로 문자화 이전에 점검되어 방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가 VP의 지정어 위치에서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효과를 일으킨다.<sup>6)</sup> 반면 한국어와 같이 동사구내 주어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언어는 주격자질이 약하기 때문에 문자화 이전에 방출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보

5) 전에는 접사이동으로 인해 Inf의 핵지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최근 이론에서는 접사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가 논리형태에서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프로의 허가조건도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6) 촘스키(1995)에서는 격자질과 범주자질을 분리하여, 모든 격자질은 약하나 T가 강한 범주자질 D를 가지고 있어, 주어인상과 같은 확대투사원리 효과를 일으킨다고 한다.

다 경제적인 논리형태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sup>7)</sup>

마지막으로 주어인상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극어의 분포를 들 수 있다. 부정극어란 부정어가 반드시 필요한 'anyone'과 같은 것인데, 부정어가 그것을 성분통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부정극어가 주절의 주어위치에 올 수 없다. 즉, 'He doesn't like anyone'은 정문이지만 'Anyone doesn't like him'은 비문이다. 이는 IP와 VP사이에 있는 부정어가 더 이상 주어인상으로 인해서 I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주어를 성분통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한국어의 '부정극어' '아무도'는 이러한 차이가 없으며 이는 주어 명사구가 VP내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III. 제2언어 습득과 보편문법

앞서 2절에서 언급된 언어 습득상의 학습가능성의 문제가 제2언어 습득에도 있다고 가정하며,<sup>8)</sup> 이것은 제2언어 습득자가 제1언어 습득에서와 같이 보편문법에 접근가능하다고 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보편문법이 제2언어 습득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제1언어와 상관없이 직접 접근가능하다는 입장과 제1언어가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매개변항의 재조정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일치소의 습득과정을 보일 것이다.

영어를 배우는 아동이 일치소를 습득하는 시기와 주어탈락 현상이 제거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제1언어습득 상의 증거는 한국어 화자가 영어의 일치소를 습득하는 제2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예측을 하게 한다. 먼저, 보편문법이 제2언어 습득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매개변항 일치소의 값이 -AGR인 한국어 화자는 목표어인 영어의 매개변항 값인 +AGR을 결국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이한 두 집단을 놓고 일치소의 습득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sup>9)</sup> 그 다음으로 일치소의 습득이 이루어진 집단의 경

7) 김양순(1988)은 한국어의 동사구내에 기저생성되는 의미역 주어는 Infl과 상관없이 V-투사내에서 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8)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학습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화이트(White 1988)를 참조할 것.

9) 이 경우, 일치소가 습득되지 않은 것이 제1언어 즉 한국어의 전이현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습득 상태인지는 확실치 않다.

우, 과연 주어탈락 현상이 사라졌는지 또 일치소가 아직 습득되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주어탈락 현상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치소와 주어인상과는 이론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주어인상은 시제가 갖는 주격자질의 강한 속성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제2언어 습득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일치소의 습득이 주어인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어순상의 오류의 종식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주어인상으로 인한 주어위치에 관한 오류의 종식은 일치소의 습득과는 상관없이 습득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어인상을 일으키는 시제범주의 자질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영어의 T가 강한 주격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아동이 시제문장과 부정사 구문을 접하면서 영어에 T가 강한 주격자질을 가진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 한국어를 배우는 아동의 경우는 시제에 따라 주어 명사구의 출현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약한 자질임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즉, 한국어에서는 주격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주어인상을 문자화 이전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제2언어 습득의 측면에서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배울 때는 시제접사와 함께 영어의 T가 강한 주격자질임을 알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아동의 초기 문법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부정어가 주어를 선행하는 오류가 한국어 화자에게서도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매개변형의 재고정으로 그러한 오류가 없어질 것이다.

위에서 살핀 문법현상들 사이에 제1언어 습득상의 순서가 있다고 한다. 제1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할 때, 주어의 위치에 관한 오류는 2세를 전후하여 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종식은 아동의 초기 문법에 격여과가 존재하며, 주어인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어탈락 현상은 2와 1/2세에서 3세까지 지속되어 주어위치에 관한 오류가 없어진 후에도 주어탈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습득순서에 대한 설명은 일치소와 격이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주어가 동사구내의 원위치에서 의무적으로 TP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T의 강자질이 방출되어야 한다는 격이론적 요건 충족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어인상이 일어난 후에도 일치소가 습득될 때까지는 격여과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공범주인 프로가 주어 위치에 나올

10) 김양순·최숙희(1996)는 한국어에는 시제범주가 없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어에서 의무적인 주어인상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설명되지만, 한국어의 주격은 영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T의 매개변항 고정미 일치소보다 먼저 습득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문법현상 사이의 습득 순서가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존재하는 지를 일치소가 없고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한국어의 화자가 일치소가 있고 주어탈락이 불가능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IV. 실험

실험은 일치소의 습득 여부를 알아보는 일치소 테스트와 주어가 생략된 구문을 얼마나 허용하는 가를 묻는 주어탈락 테스트, 주어가 인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정어가 주어 선행하는 비문법적인 문장들에 대한 문법성 판단능력 테스트 및 마지막으로 주어인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부정국어 테스트 등 네 가지 종류이다.

##### 1. 참여자

실험의 참여자들은 공주지역의 중학교 3년 학생 40명과 대학교 1년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을 학기 초에 실시했으므로 중3 학생들의 경우 2년 조금 넘게 영어를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중3을 택한 이유는 사전 테스트에서 중2까지는 평균적으로 복문 및 부정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테스트를 수행할 영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집단으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성인 영어 원어민 10명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며 대부분 한국에 3년 미만 동안 거주한 자들이다.

##### 2. 자료 및 방법

주로 문법성 판별을 위한 객관식 문항과 보충적으로 주관식 문항이 섞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테스트는 반응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정문과 비문을 포함하여 관련된 문항을 다섯에서 여덟개의 문장으로 만들었고, 각 테스트를 섞어서 하나의 설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필라(filler)를 삽입하지 않았다. 참고로 실제 사용된 설문지를 논문의 끝부분인 부록에 실었다.

본 문항에 앞서 예제를 같이 풀어 봄으로써 통사 외적 요인에 의한 비문법성 판정을 지양하도록 유도하였고, 일반적인 영어 시험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가능하면 피험자의 직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20분 이내에 응답을 끝냈으며 부정극어에 관한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 3. 결과 및 논의

테스트 결과로 먼저 두 집단 간의 일치소 습득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이후 (가)집단은 중학생을, (나)집단은 대학생을 지칭하기로 한다.

< 표 1 > 두 집단의 일치소 습득(100 기준)

	<가>	<나>	<원어민>
평 균	51.8	78.4	100.0

<표 1>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가)집단의 경우는 겨우 우연의 수치를 넘어서서 아직 일치소가 습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나)집단은 80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므로써 일치소가 습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와 (나)집단 사이의 중간 점수를 보이는 중간 집단이 있다면 발달 단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의 결과를 더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주관식 문항 3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집단의 경우 평균 9.5점인 반면, (나)집단의 경우는 77.5점이었다. 이러한 두 집단간의 현격한 점수 차이는 주관식 문제들의 경우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일치소 습득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치소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각 문항별 정답자 수의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 표 2 > 문항별 분석

	문법적 문장		비문법적 문장		
	<가>	<나>		<가>	<나>
b	69.1	100	a	57.1	72.5
c	52.4	72.5	d	31.0	70.0
			e	50.0	80.0
평 균	60.8	86.3		46.0	74.2

문항별 분석의 결과도 (가), (나) 집단간에 일치소 습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집단의 경우, 일치소가 없는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반응이 우연의 수치에 못미치는 것은 비록 문법적 문장에 대한 옳은 판단이 60%를 상회한다 할지라도 일치소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반면, (나)의 경우는 문법적, 비문법적 문장 모두에서 각각 87%와 74%의 정답자수를 보임으로써 반응편향성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일치소가 결여된 비문법적인 문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일치소가 습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어탈락 현상에 대한 결과를 보자. 먼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집단간에는 일치소의 경우와 비슷한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치소 습득이 이루어 지지 않은 (가)집단은 주어탈락 구문에 있어서도 우연의 수치를 조금 웃도는 55점이고, 일치소가 평균적으로 습득된 (나)집단은 87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인다. 문항별 분석을 보여준 <표 4>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표 3 > 두 집단간 주어탈락에 대한 평균점수

	<가>	<나>	<원어민>
평 균	55.4	86.6	87.5

< 표 4 > 문항별 분석

	문법적 문장		비문법적 문장		
	<가>	<나>	<가>	<나>	
a	64.3	95	c	42.9	75
b	66.7	95	d	59.5	80
e	45.2	97.5	f	40.5	90
h	54.8	77.5	g	69.0	87.5
평 균	57.9	91.3		53.0	83.3

(가)집단은 문법적, 비문법적 문장 모두에서 평균 60%가 안되는 분포를 보인 반면, (나)집단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일치소 습득과 주어탈락 현상이 관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 5>를 통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표 5-1>은 두 집단을 통털어 총 대상자 80명을 일치소 점수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나누고, 각 단계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주어탈락과 주어인상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lt; 표 5-1 &gt; 일치소 기준

	일 치 소	주어탈락	주어인상
상	89.4	81.3	74.4
중	54.0	67.4	64.8
하	18.2	52.3	58.2

일치소 점수와 주어탈락 점수는 집단이 하에서 상으로 갈 때, 거의 같은 비례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인다. 일치소의 경우는 대략 35점씩 상승하였고, 주어탈락의 경우는 15점 가량씩 상승하였다. 반면 주어인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은 동일하나, 집단간의 차이가 앞선 두 항목에 비해 작으며, 특히 중위권 집단과 하위권 집단 사이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하위권 집단의 평균점수가 60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일치소 습득과 상관없이 전 집단에서 주어인상이 대체적으로 습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자료가 <표 5-2>에 있다.

&lt; 표 5-2 &gt; 주어탈락 기준

	주어탈락	일 치 소	주어인상
상	88.0	75.2	71.4
중	58.1	53.0	63.4
하	30.6	47.2	63.6

<표 5-2>는 주어탈락 점수를 기준으로 총 인원을 세 집단으로 다시 나눈 것이다. 주어탈락 점수가 중위권 집단까지는 일치소가 어느 정도 습득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점에 있어서는 주어인상도 마찬가지로 상·하집단 모두에서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위권 집단으로 내려 오면, 주어탈락과 일치소가 아주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둘 다 습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어인상 항목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위권 집단의 점수보다도 조금 높은 점수를 보여, 전 집단에서 주어인상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이는 주어탈락과 일치소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주어인상은 이들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 준다.

(가), (나)집단 간의 주어인상 점수를 비교한 <표 6>를 보아도 일치소 습득이 이루어 지지 않은 (가)집단의 평균점수가 60을 넘은 것으로 보아, 주어인상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lt; 표 6 &gt; 주어인상 평균점수

	<가>	<나>	<원어민>
평 균	60.5	73.2	92.0

주어인상 테스트에 대한 문항별 정답자수는 <표 7>에 있다. 비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분포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가>집단의 경우 평균 70%의 정답률은 주어인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반응이 너무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혹시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점수가 반응편향성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주어인상이 확실시 되는 <나>집단에서도 문장 d가 매우 낮은 값이므로, d의 구문이 주어인상과 상관없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문법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문장 c의 경우 <가>집단의 낮은 점수는 주어인상과 상관없이 부정어 'no'가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lt; 표 7 &gt; 문항별 정답자수(100기준)

	문법적 문장		비문법적 문장		
	<가>	<나>	<가>	<나>	
c	30.0	72.5	a	85.0	95.0
d	52.5	52.5	b	70.0	92.5
			e	55.0	55.0
평 균	41.3	62.5		70.0	80.8

이제 두 집단이 보이는 세 항목 사이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한꺼번에 <표 8>를 통해 다시 한번 비교해 보자. 처음 두 항목에서는 두 집단 사이의 점수 차이가 각각 약 26점과 31점으로 큰 차이가 있으나, 주어인상에 있어서는 약 12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점수 차이가 있다. 이는 두 집단이 일치소와 주어탈락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어인상에 관하여는 차이가 없으며 일치소의 습득과 주어탈락 현상의 종료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lt; 표 8 &gt; 두 집단간 항목별 평균점수

	일 치 소	주어탈락	주어인상
<가>	51.8	55.4	60.5
<나>	78.4	86.6	73.2
<원어민>	100.0	87.5	92.0

마지막으로 부정극어 대한 결과를 <표 9>과 <표 10>을 통해 알아 보자. 우선 두 집단의 평균점수가 모두 50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부정극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결과를 가지고 두 집단 사이의 주어인상에 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lt; 표 9 &gt; 부정극어 평균점수

	<가>	<나>	<원어민>
평 균	45.8	47.1	100.0

그러나, 우리는 문항별 분석의 결과에서 약간의 시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반응은 비문법적 문장에 대한 것과 달리 꽤 높은 비율의 정답을 보였다. 특히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었을 때, 단문에 대한 정답 비율은 (가) 집단의 경우도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극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집단간의 비문법적인 문장에 대한 평균 정답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나)집단의 점수가 (가)집단보다 오히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인상과 관련된 부정극어 현상에 있어서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lt; 표 10 &gt; 부정극어 문항별 정답자수

	문법적 문장		비문법적 문장		
	<가>	<나>		<가>	<나>
a	70.0	85.0	d	47.5	15.0
b	47.5	60.0	f	27.5	40.0
c	65.0	100.0	g	40.0	25.0
e	37.5	67.5	h	55.0	40.0
평 균	55.0	78.1		42.5	30.0
단 문	67.5	92.5		37.5	27.5
복 문	42.5	63.75		47.5	32.5

## V. 결 론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화자의 영어 일치소 습득자료를 근거로 볼 때, 제2언어 습득에서도 보편문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치소라는 기능범주가 범언어간 차이를 위해 +/-AGR로 매개변항화되어 있다고 할 때, 비록 처음에는 모국어의 값인 -AGR을 보이지만 결국은 목표어의 값으로 매개변항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매개변항을 포함하는 보편문법에 제2언어 습득자가 접근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이론적으로 주장된 일치소과 다른 문법현상이 관련되어 있음이 제2언어 습득 자료로써 입증된 점이다. 이는 이미 제1언어 습득에서 입증되었는데, 일치소의 습득과 주어탈락 현상의 종료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습득하는 제2언어 습득의 과정에서도 일치소의 습득과 주어탈락 현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어인상이라는 문법현상은 이론적으로 일치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습득 자료로서 확인이 되었다.

## 부 록

### I. 일치소 습득을 알아 보는 문제.

- (1)\*a. Kiho's dog is white and he wash the dog.
- b. Kiho's mother reads many books.
- c. Kiho tells his friends that he has a computer.
- \*d. Kiho and Suehee goes to school every day.
- \*e. The tall boy drink a lot of juice.

다음은 주관식 문제로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과제인데, 일치소 습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된 보충적인 문제이다.

- (2) a. Kiho doesn't study hard at home.
- b. The teacher doesn't open the door for Kiho.

c. Suehee doesn't walk to school every day.

II. 주어생략 현상을 보기 위한 테스트.

- (3) a. Kiho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b. And he washes his face in the bathroom.  
 \*c. Usually has breakfast with his Dad.  
 \*d. Kiho tells Mom that wants ice cream.  
 e. He says that he knows many girls.  
 \*f. Kiho hopes that rains today.  
 \*g. He knows when is hungry at school.  
 h. He is happy when he eats lunch.

III. 주어위치 오류에 관한 테스트 문항.

- (4)\*a. At school not Kiho speaks a word.  
 \*b. This morning no Kiho has breakfast.  
 c. No student likes homework.  
 d. Kiho doesn't know much about computers.  
 \*e. No the teacher thinks that it is true.

IV. 부정극어를 통한 주어인상 효과를 알아보는 테스트 문항.

- (5) a. Kiho doesn't know anyone in the class.  
 b. Kiho knows that he doesn't like anyone.  
 c. Suehee doesn't speak to anyone in her class.  
 \*d. Any student doesn't like the teacher.  
 e. Suehee doesn't think that anyone likes her.  
 \*f. Anyone doesn't ask Kiho about the problem.  
 \*g. Kiho thinks that anyone doesn't speak to him.  
 \*h. Anyone tells Kiho that he doesn't study hard.

## 참 고 문 헌

- 김양순, 최숙희.(1996). "보편문법과 언어습득 관점에서 본 통사구조". *영어영문학*. 42(2). 463-483.
- 김연승.(1997). "영어에서의 격점검의 유형과 방식". *영어영문학*. 43(1). 171-195.
- 서진희.(1996). "재귀사의 형태적 특성과 일치소로 본 한국어 화자의 영어 재귀사 습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1). 45-58.
- 여경희.(1995). "한국어 화자들의 영어 학습에 나타난 pro-탈락 매개변인의 설정". *영어영문학*. 41(3). 889-904.
- Bennett, S. and L. Progovac.(1995). *Interaction between Morphological Complexity of Reflexives and Agreement in Developing Grammars*. ms. McGill University and Wayne State University.
- Bloom, P.(1993). "Grammatical Continuity in Language Development : The Case of Subjectless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24 : 721-734.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 Foris.
- \_\_\_\_\_.(1986). *Barriers*. Cambridge, MA : MIT Press.
- \_\_\_\_\_.(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20 :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Ed. K. Hale & S.J. Keyser, 1-52. Cambridge, Mass. : MIT Press. 1993.
- \_\_\_\_\_.(1995). "Bare phrase structure." ms. MIT.
- Deprez, V. and A. Pierce.(1993). "Negation and Functional Projections in Early Grammar." *Linguistic Inquiry* 24 : 25-67.
- Hyams, N. and K. Wexler.(1993). "On the Grammatical Basis of Null Subjects in Child Language." *Linguistic Inquiry* 24 : 421-459.
- Huang, C.-T.J.(1993). "Reconstruction and the Structure of VP : Some Theoretical Consequences." *Linguistic Inquiry* 24 : 103-138.
- Kurtzman,(1993). H.-S. and M.-C. MacDonald. "Resolution of

- Quantifier Scope Ambiguities." *Cognition* 48 : 243-279.
- Lee, D-M.(1992). *Universal Grammar, Learnability and the Acquisition of L2 English Reflexive Binding by L1 Korean Speakers*. Ph.D dissertation. Los Angeles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Park, H.-R.(1989). "Subject Drop Paramete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Eds. S.Kuno et al.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 Radford, A.(1990). *Syntactic Theory and the Acquisition of English*.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i, L.(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 : MIT Press.
- Schachter, J.(198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Universal Grammar." *Applied Linguistics* 9 : 219-235.
- Stromswold, K. and W. Snyder.(1997). "The Structure of Acquisition of English Dative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28 : 281-317.
- Wexler, K. and M. Manzini.(1987). "Parameters and learnability in binding theory." In T. Roeper and E. Williams, Eds. *Parameter Setting* (pp. 41-76). Dordrecht : D. Reidel.
- White, L.(1989).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msterdam : John Benjamins.